

억지스럽게 이어지는 콜로세움의 혈투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리들리 스콧 감독 "글래디에이터 II"

유럽 여행은 이탈리아부터 시작하라는 말이 있다. 로마에서 출발하는 여정이야말로 유럽에 걸쳐 문화적 과업을 이룬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서구문화의 원류인 로마에 첫 발을 디딘 때의 감동을 잊기 어렵다. 시내 어느 곳을 가도 작고 정교한 부조 등 미술 품이 건축물에 함유돼 있고 커다란 조각상들이 비둘기 분비물에 얼룩져 방치될 만큼 많고도 많았다. 관리 안된 오늘의 모습 속에서 과거 로마제국의 영화를 들여다보고 비스듬히 부서진 콜로세움의 본래 모습을 상상 속에서 조립해보는 나만의 로마 여행이었다.



리들리 스콧 감독 '글래디에이터 II'.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다 보니 구성에 개연성이 부족한 신, 시퀀스 등이 있었다. 일견 역사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면 억지스러움이 묻어나오게 마련인가 싶다.

전편 '글래디에이터' 줄거리를 보면, 검투사 막시무스에 대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신임이 깊어 아들과 딸 대신 막시무스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 주려 한다. 이를 사전에 안 아들 콤모두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 자리에 오른다. 막시무스의 가족은 처형했지만 시민들의 영웅이었던 막시무스를 죽일 명분이 없어 검투사 시합을 하게 만든다. 막시무스를 사랑하던 루실라 공주에게는 어린 아들 루시우스가 있다. 막시무스는 검투사 시합에서 연전연승하며 살아남아 콤모두스에게 복수를 한 후, 생을 마감한다.

'글래디에이터 II'는 20년 후가 배경이다. 쌍둥이 황제가 지배하는 로마는 폭정 아래 병들었고 '로마의

꿈'은 잊힌지 오래다. 어릴 적 죽음을 피해 타지로 보내진 루시우스는 하루(배우 폴 메스칼)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누마디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루시우스는 로마군의 침략에 대응하는 전쟁을 치르면서 아내 아리샤를 잃고 노예로 전락한다. 이 전쟁으로 마르쿠스 아카시우스(배우 페드로 파스칼) 장군은 영웅이 되고 쌍둥이 황제 게타(배우 조셉 킨)와 카라칼라(배우 프레드 헤인저)는 전승축하 검투사 경기를 치르게 한다. 황제를 제압하고 권력욕을 발하는 마크리누스라는 빌런 역을 배우 덴젤 워싱턴이 안정적으로 보여준 반면, 다른 주역들은 썰하는 빛을 발하지는 않은 듯하다.

불거리는 콜로세움 안에서 벌어지는 혈투. 이를 위해 식인 원숭이, 코뿔소, 식인 상어를 등장시킨다. 이 가운데 콜로세움 안에서 벌이는 '살라미스 해전'은

하이라이트격이다. 콜로세움 크기의 60%로 구현한 콜로세움 세트 안에 물을 채우고 위협적인 식인 상어를 득실거리게 만든 것은 가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 규모다. 제작비가 3억 1000만 달러(4330억 원)면 전작으로 벌어들이던 6430억 원의 2/3를 쏟아 부은 격인데 87세의 노장 감독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스콧 감독 역시 속편이 갖는 위험 부담을 토로했다 한다. 속편은 전편보다 우월하지 않으면 비교하듯 평가를 받게 마련이다. 전편이 호평 일색이었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위시한 5개 부문을 수상한 만큼 '글래디에이터 II'는 흥행이 충분히 예상되던 터였다.

더욱이 이 영화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한만큼 한국 영화인들의 평가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 호·불호가 갈리는 중이다. 필자의 견지로는 작품성의 신선함은 없었다. 주역 배우의 연기력도 도드라지지 않아서 불거리만으로 내세우기에는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영화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드는 생각은, 서양인의 기질에 대한 이질감이다. 그들에게는 잔혹한 야만성이 태생적으로 내재돼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시대인들의 관심사를 대변하는 콜로세움을 중심으로 피를 보아야 불거리의 직성이 풀리는 문화. 물론 전쟁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던 시대적 흐름과 전통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유럽 어느 도시의 박물관을 가봐도 전쟁의 역사 일색이다. 반면, 동양인들의 축제에는 자연을 파괴하는 문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자연을 숭배하고 융화하며 자연의 일부임을 수용하는 문화의 비중이 훨씬 크고 넓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대학 생존·안전한 공론장, 두 가치의 충돌



취재수첩

박소영

취재1부 기자
soyeong.park@jnibo.com

설립자 흥상에 뿌려진 오물, 본관 앞 벗어둔 수백 점의 학과 점포, 학교 곳곳 빨간 글씨의 대자보들. 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위한 거센 반발의 흔적들이다.

동덕여대 내부 갈등은 교무회의에서 일

부 교직원이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학교 측은 학교 발전을 위한 의견일 뿐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여성 학습 공동체라는 의미를 포기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절차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반대 시위는 성신여대, 광주여대 등 전국 여대들의 '여대 존치'에 대한 시위로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은 4년제 여자대학은 7곳이다. 이중 이화여대를 제외한 광주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는 동덕여대

반대 시위에 함께하거나 연대 입장을 표명했다.

성신여대는 학교 측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외국인 남성 학생 지원을 열어둔 점을 문제 삼고 시위를 벌였다. 사실상 남성입학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여대도 최근 학교 측이 변경한 입학 모집 요강에 남성 유학생·성인 학습자(만학도)를 받는다는 조항이 추가돼 재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진행됐다.

이번 동덕여대의 내용을 기점으로 '여대'라는 공간에 대한 찬반논쟁이 다시금 피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대 존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강력한 가부장제 아래 배제된 여성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

해 설립된 여대가 현대와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이다. 또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남자 입학생을 모집하지 않는 여대의 경우,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반면 'N번방', '딤페이킹 범죄' 등 성차별, 성범죄 등이 여전한 한국 사회에서 과거 여성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설립 가치가 유효하다는 시각도 있다. 성별이 잣대가 되지 않아 물리적·심리적 안정 아래 학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의제를 연구하는 학문적 기반으로서 의미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학의 생존 위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대학은 학과 통폐합은 물론 비인기 학과 입학생을 더 이상 받

지 않는 사실상 폐과 절차를 밟고 있기도 하다.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학령 인구인데, 여성만 받는 여대의 경우 남녀공학보다 경영상 어려움을 모면할 자구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여대는 안전한 공론장이다. 남녀공학 대학에서는 해마다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으며 지금 공학 반대를 외치는 동덕여대, 광주여대 등 여대에서조차 '동덕여대 알몸남', '도서관 음란행위 적발' 등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과 학교 측 모두 본인들만의 목소리만 낼 수 없는 답보 상태인 것이다. 대학의 생존과 안전한 공론장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가치 속 한국 여대들의 해법을 기대해 본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